

한국 즉석라면 조리기 대만 편의점에 도입

최근 대만 편의점에서 한국 즉석라면조리기가 도입 되서 화제가 되고 있다
대만 HI LIFE 편의점은 한국 CU 및 GS 편의점의 즉석라면조리기를 현재 대만
내에 20개 매장에 설치되어 이번 달 말까지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
다

한국 즉석라면조리기 도입으로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대만소비자들이 이전 한
국까지 갈 필요 없이 대만에서도 편의점에서 쉽게 한국라면을 직접 조리할 수
있으며, 한국드라마, 미디어 등 한류인기를 통해 대만시장에서 호응도가 높을
것으로 전망했다

즉석라면조리기 설치는 우선 학교 및 오피스센터 위주 매장에 설치되며, 대만
소비자들이 선호한 한국떡볶이, 라볶이, 신라면 등으로 구성해서 판매전략이
이루어지며, 판매가는 TWD59~139원(원화 2,124~5,004)에 판매 된다.

대만 최대 편의점인 7-11 및 패밀리마트에서는 즉석라면조리기 시범 운영을
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관찰할 예정이며 대만시장 도입은 아직 보류중이라고
밝혔다

시사점:

-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드라마 등의 인기로 인해 한국라
면 등 한국식품의 수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.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한국
라면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화제거리를 만들고 있다. 그만큼 한국식품의 호
응도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지속시키기 위한 매장과의 아이디어 교
류 및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

자료원: 대만연합보

2018.01.11